

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3. 6월]

- 국제원자재 가격,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 개선 전까지 관망세 예상 -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동향

- [원자재지수] 5월 S&P GSCI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, 위험선호심리 약화 등으로 7개월 연속 하락(-6.5%). 전 부문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'21년 12월 이후 최저치 기록
 - 부문별로 에너지 -8.9%, 농산물 -2.7%, 산업금속 -7.0%, 귀금속 -1.4%, 축산물 -0.9% 등
 - 5월말까지 누적 상승률, 에너지 -19.1%, 농산물 -9.8%, 산업금속 -9.7%, 귀금속 +7.5%
- [품목별] WTI -11.3%, 美천연가스 -6.0%, 유럽천연가스 -32.9%, 亞 휘발유 -6.1%, 옥수수 -6.6%, 대두 -10.0%, 원당 -7.2%, 구리 -5.9%, 니켈 -15.0%, 아연 -15.1%, 금 -1.4% 등
 -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재고 수준, 전반적인 수요 부진 등으로 2년래 최저치로 하락. 원당 가격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하락

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중국 리오프닝과 성수기 진입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는 박스권에서 관망세(wait-and-see mode)가 이어질 전망
 - 주요 기관들이 하반기 수요 회복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, OECD 재고가 5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 완화 시 상승세가 재개될 소지
 - ※ '23. 1분기말 OECD 재고는 28.04억배럴로 5년 평균을 2%p 하회(EIA)
- [곡물] 국제곡물가격은 기상여건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 한 하향안정세를 이어갈 전망. 다만 최근 과매도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상존
 - 파종이 종료되면 강우 및 온도가 작황을 좌우. 따라서 엘니뇨 상황 등 농업기상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- [비철금속]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호전되기 전까지 비철금속 가격은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. 다만 단기 낙폭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
 -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제지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동향에 주목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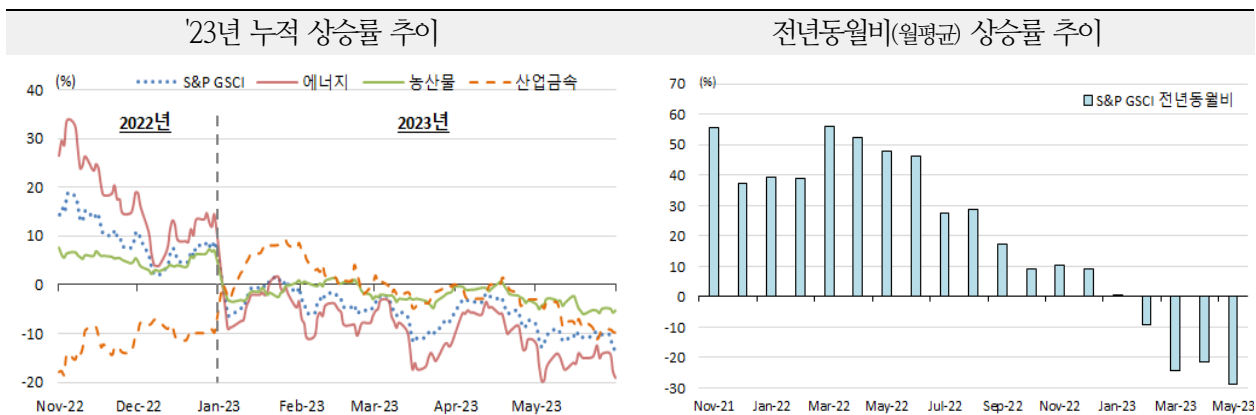
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□ S&P GSCI 추이

- 5월 S&P GSCI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, 위험선호심리 약화 등으로 7개월 연속 하락. 귀금속을 비롯한 전 부문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'21년 12월 이후 최저치 기록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4월말	5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말비(%)
S&P GSCI*	564.97	528.22	-6.5	-13.4	-32.8
에너지	255.86	233.06	-8.9	-19.1	-42.5
농산물	436.07	424.33	-2.7	-9.8	-24.6
산업금속	438.10	407.23	-7.0	-9.7	-19.9
귀금속	2611.91	2575.45	-1.4	7.5	7.4
축산물	386.66	383.33	-0.9	7.3	13.7

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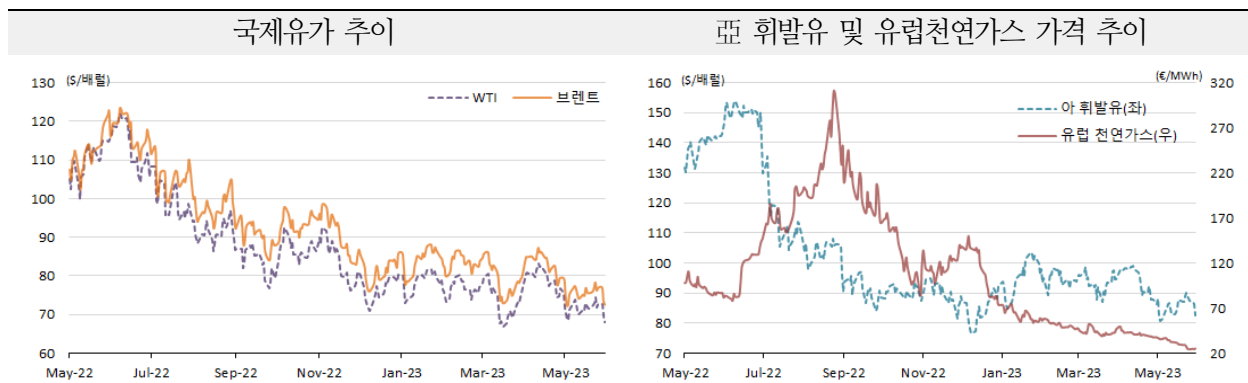
2. 원유

□ [5월 현황] WTI 전월말 대비 -11.3%, ̶ 휘발유 -6.1%, 유럽 천연가스 -32.9%

- 국제유가는 中 경제지표 실망, 연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, OPEC+ 추가 감산 불확실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락. 미국이 전략비축유(SPR) 재비축을 시사했으나 역부족
- 아시아 휘발유 가격도 국제유가와 동반 하락세.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재고 수준, 전반적인 수요 부진 등으로 2년래 최저치로 하락

품목	4월말	5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WTI(\$)	76.78	68.09	-11.3	-15.2	-40.6	94.33	75.74
브렌트(\$)	79.54	72.66	-8.6	-15.4	-40.8	99.04	80.99
두바이(\$)	78.89	72.09	-8.6	-8.4	-38.4	97.03	79.36
美휘발유(\$)	108.28	107.52	-0.7	4.1	-37.3	124.67	107.51
亞휘발유(\$)	87.87	82.51	-6.1	-10.7	-42.3	109.73	92.64
美천연가스(\$)	2,410	2,266	-6.0	-49.4	-72.2	6,542	2,543
유럽천연가스(€)	38.00	25.50	-32.9	-65.5	-70.7	132.34	46.43

주 : NYMEX: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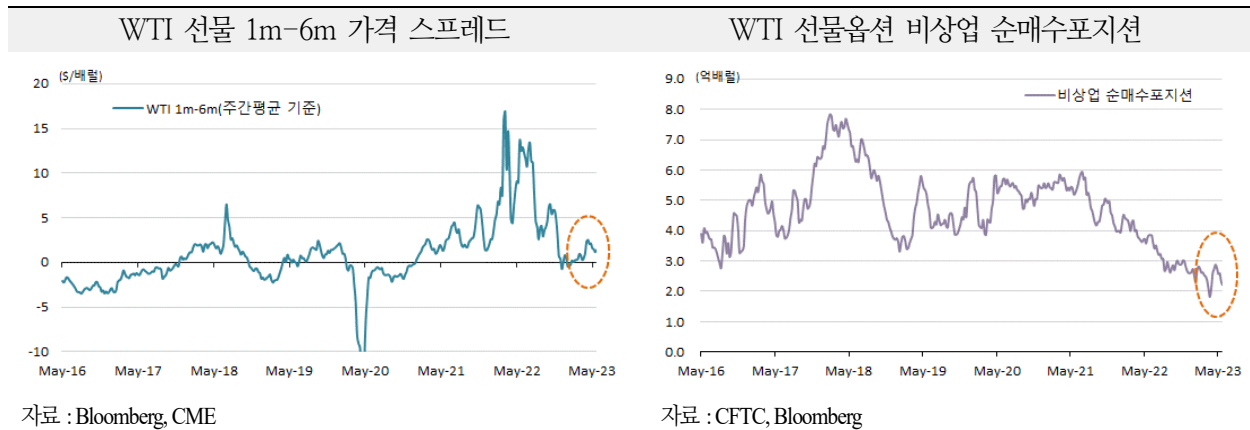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CME
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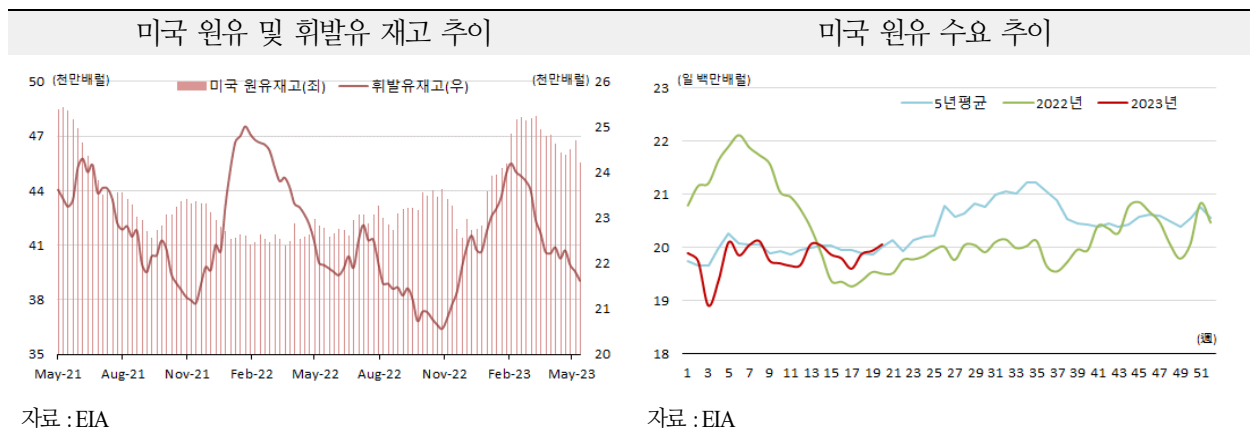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- WTI 선물시장 지표 : 약한 백워데이션 지속, 금융투자자의 매도(short) 포지션 증가
 - 글로벌 원유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수급여건을 나타내는 백워데이션 지속. 다만 그 정도는 약화(※WTI 1월-6월물 스프레드, 4월 \$2대 → 5월말 \$1 내외)
 -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4.18일 2.89억배럴 → 5.23일 2.23억배럴로 감소. 매도 포지션 증가와 함께 차익매물이 일부 출회된 데 기인



○ 미국 실물지표 : 원유 및 제품 재고 감소, 원유수출 감소, 원유수요 회복 등

- 원유 재고는 5.19일 4.55억배럴로 한 달 전보다 -447만배럴(-1.0%), 휘발유 재고 -660만 배럴(-3.0%), 증류유 재고 -465만배럴(-4.2%). 증류유 재고는 '05년 이후 최저치에 근접
- 원유 수출은 5.19일 일일 412만배럴로 3월말 정점 이후 감소세. 수요는 2,006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+2.8%, 정유설비 가동률은 92%로 5년 평균을 1.3%p 상회



○ OPEC 및 중국 지표 : 사우디 OSP(對亞) 소폭 하향, OPEC 감산, 中 원유수입 감소

- 중국의 4월 원유수입은 전월 대비 큰 폭 감소. 이는 정유사들의 유지보수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, 일각에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

	2월	3월	4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배럴)*	28.87	28.79	28.60	• 감산 기조 유지 5월 감산 폭 확대 예상
사우디 생산*	10.36	10.41	10.50	• 5월부터 일일 50만배럴 추가 감산 예고
사우디 OSP(對亞)**	\$2.5(4월인도)	\$2.8(5월인도)	\$2.55(6월인도)	• 정제마진 하락으로 4개월 만에 소폭 하향
중국 원유수입(백만톤)**	40.74	52.31	42.41	• 전년동월 대비 -1.4%. 1~4월은 +4.6%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*OPEC, **Bloomberg

□ [관전포인트] OPEC+ 추가 대응 여부, 수급 전망에 대한 시각, 미국 SPR 재비축 계획 등

- OPEC+가 추가 감산에 나설지 불확실하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할 필요
 - 사우디는 전월 중 유가 하락에 대한 베팅(short selling)이 늘어난 것에 대해, 지난 4월의 기습 감산을 언급하며 투기세력에 조심하라고 경고. 이에 따라 일각에서 OPEC+가 6월초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
 - 하지만 작년 11월과 금년 4월 총 하루 366만배럴 감산을 결정했고, 러시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OPEC+의 추가 감산은 쉽지 않을 전망. 다만 투기적 매도에 의한 국제유가 약세가 지속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유의
- 최근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들은 타이트한 수급 전망 견지
 - IEA와 EIA는 5월 보고서에서 세계 수요 전망을 하루 20만배럴과 12만배럴 상향조정, OPEC은 전월과 비슷한 전망치를 제시하며 금년 2.3% 증가 전망을 견지. Goldman Sachs도 서방과 중국의 서비스 부문 주도로 연말까지 강한 수요를 예상
 - 반면 공급은, OPEC+의 감산 기조 및 미국 생산 부진이 이어질 전망. 특히 미국의 경우 미완결유정(DUCs) 감소, 시추기 감소 등으로 감소세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
- 미국 전략비축유(SPR) 재비축 계획 구체화
 - 금년 하반기에 SPR을 지난해 평균 방출 가격인 \$95보다 낮은 가격으로 3백만배럴 확충할 계획. 시장에서는 빠르면 8월에 비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 - 재비축 규모가 지난해 방출 규모(2.2억배럴)에 비해 크게 부족하나, 이를 시작으로 재비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유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

□ [전망] 중국 리오프닝과 성수기 진입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는 박스권에서 관망세(wait-and-see mode)가 이어질 전망

- ▲주요 기관들의 하반기 수요 회복 전망 유지 ▲5년 평균보다 낮은 OECD 재고 ▲글로벌 공급확대 여력 제한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 완화 시 유가 상승세가 재개될 소지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5월(a) ¹⁾	'23.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
WTI	71.62	79(-1)	82(+1.2)	85(+0.5)	85(-)
브렌트	75.69	82.5(-2.5)	86(+0.5)	90(+0.5)	89.9(-0.1)

주: 1) 5월 평균값 2) 5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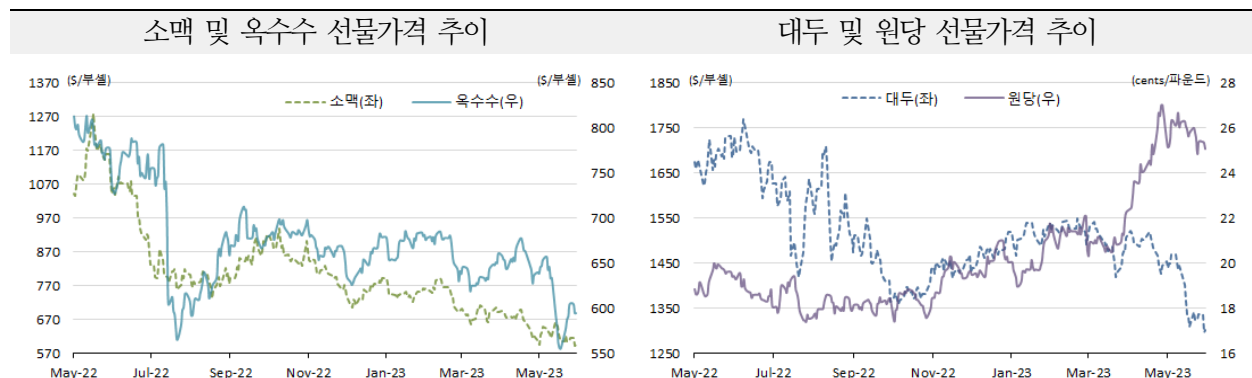
3. 곡물

□ [5월 현황] CBOT 소맥 전월말 대비 -4.1%, 옥수수 -6.6%, 대두 -10.0%, 원당 -7.2%

- 옥수수와 대두는 평년보다 빠르게 진행된 파종과 달러 강세, 중국 수요 부진, 美 부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1년래 최저치로 하락
- 소맥은 흑해곡물수출협정이 한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약세 지속. 원당 가격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하락했으나 고공행진 지속

품목	4월말	5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소맥(cents/부셸)	619.75	594.25	-4.1	-25.0	-45.4	901.67	692.03
옥수수(cents/부셸)	636.00	594.00	-6.6	-12.5	-21.2	693.89	647.12
대두(cents/부셸)	1,444.25	1,299.75	-10.0	-14.4	-22.8	1,550.66	1,478.19
쌀(\$/cwt)	17.39	17.29	-0.5	-4.2	-1.5	16.51	17.39
원당(cents/파운드)	26.99	25.06	-7.2	25.0	29.2	18.82	22.55

주 : CBOT-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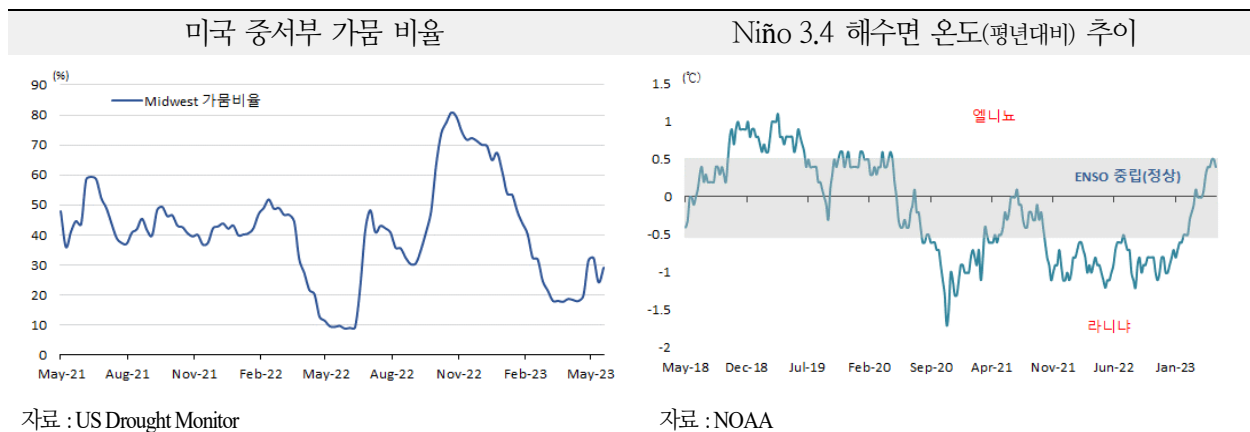
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- 미국 파종 및 작황 : 옥수수와 대두는 예년에 비해 파종이 빠르게 진행. 봄밀은 예년 수준이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빠른 편. 겨울밀 작황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

	파종률			작황(Good/Excellent Ratio)	
	전년동기	5.28	'18~'22 평균	5.28	전년동기
소맥(겨울밀)	-	-	-	34%	29%
소맥(봄밀)	70%	85%	86%	-	-
옥수수	84%	92%	84%	69%	73%
대두	64%	83%	65%		

자료 : USDA

- 농업기상여건 : 美 중서부 양호, 겨울밀 지역은 가뭄 지속, 유럽은 점차 건조해 지는 양상
 - 옥수수과 대두 재배지역인 美 중서부의 가뭄 비율은 5월 들어 30%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4월(18% 내외)에 비해서는 상승. 봄밀 주산지인 노스타코타주는 가뭄 비율이 24%로 낮아졌으나, 겨울밀 주산지인 캔자스주는 여전히 90% 내외 유지
 - 유럽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강우량이 부족하고 토양습윤도가 하락. 중동부 유럽의 날씨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
 - 적도 지역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5월 들어 평년 대비 +0.5℃ 내외로 상승. 향후 2~3개월 동안 엘니뇨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며, 연말로 갈수록 엘니뇨 강도가 높아질 전망



- 세계 곡물수급 : '23/'24년 세계 생산은 전년 대비 +3% 예상. 옥수수와 대두 생산이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대두 재고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톤)>

	'22/23	'23/'24		전년비	전월비		'22/23	'23/'24		전년비	전월비
		4월	5월					4월	5월		
곡물						소맥					
생산	27.38	-	28.20	3.0%	-	생산	7.88	-	7.90	0.2%	-
소비	27.68	-	28.10	1.5%	-	소비	7.95	-	7.92	-0.4%	-
기말재고	7.60	-	7.70	1.3%	-	기말재고	2.66	-	2.64	-0.7%	-
재고율	27.5%	-	27.4%	-0.1%p	-	재고율	33.5%	-	33.4%	-0.1%p	-
옥수수						대두					
생산	11.50	-	12.20	6.0%	-	생산	3.70	-	4.11	10.8%	-
소비	11.61	-	12.04	3.7%	-	소비	3.65	-	3.86	5.9%	-
기말재고	2.97	-	3.13	5.2%	-	기말재고	1.01	-	1.23	21.2%	-
재고율	25.6%	-	26.0%	+0.4%p	-	재고율	27.7%	-	31.7%	+4.0%p	-

자료: USDA WASDE('23.5월)

□ [관전포인트] 중국 수입, 금융투자자 동향, 금년 세계 곡물수급 전망, 흑해곡물수출협정 등

- 중국 곡물 수입, 미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
 - 중국은 수입선 다변화의 일환으로 미국산 옥수수 대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브라질산(※3분기 인도분 기준 미산 대비 톤당 \$30 저렴)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, 5월초에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산 옥수수 5.3만톤을 수입
 - 이와 함께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도 경제적·영양학적 이유로 옥수수에서 소맥(※옥수수보다 톤당 가격 저렴하고 단백질은 풍부)으로 대체. 이는 옥수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
- 주요 곡물의 선물옵션에 대한 금융투자자금 유출 확대
 - CBOT 소맥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5.23일 -10.1만계약으로 5년래 최저치로 감소. 옥수수 순매수포지션도 -9.1만계약으로 3년래 최저치. 대두 순매수 포지션은 1.9만계약으로 연중 최고치(※2.21일 19.5만계약)의 1/10 수준
- 금년 세계 곡물 생산 전망은 긍정적으로 출발
 - '23/'24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이 첫 발표된 가운데 미국 농무부는 전쟁, 이상기후 등에도 불구하고 소맥·옥수수·쌀 등 주요 곡물의 생산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. 수요를 상회하는 생산 덕분에 재고는 4년 만에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
- 흑해곡물협정 7.17일까지 2개월 연장. 하지만 불안감 여전
 - 러시아는 자국 농업은행의 SWIFT 거래 재개와 비료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7월 시한 만료 후 흑해곡물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

□ [전망] 국제곡물가격은 양호한 금년 수급전망 등을 감안하면 기상여건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 한 하향안정세를 이어갈 전망. 다만 최근 시장이 과매도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 상존

- 파종이 종료되면 강우 및 온도가 작황을 좌우. 따라서 엘니뇨 상황 등 농업기상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5월(a) ¹⁾	'23.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
소맥	619.69	687(-23)	713(-4)	700(-4)	700(-10)
옥수수	608.91	630(+5)	613(-27)	647(-33)	602(-71)
대두	1,385.59	1,419(-31)	1,408(-82)	1,480(-10)	1,351(-87)

주: 1) 5월 평균값 2) 5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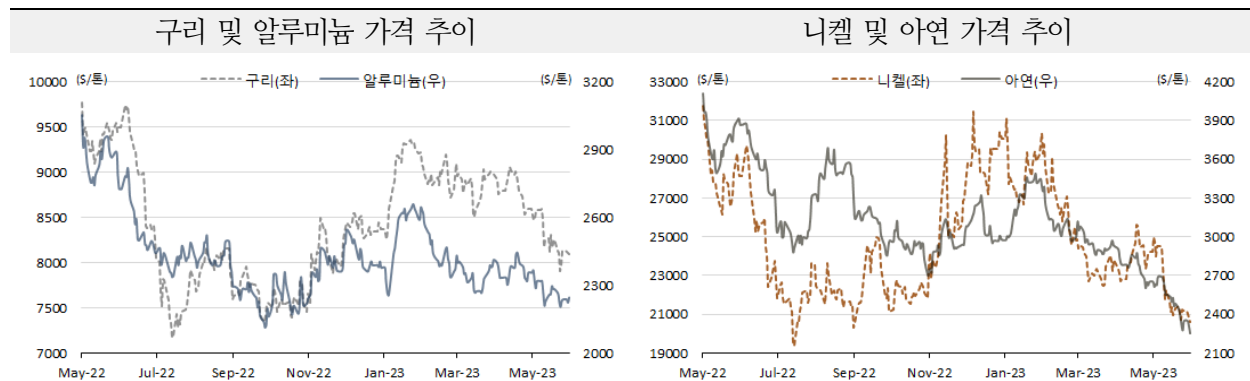
4. 비철금속

□ [5월 현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-5.9%, 니켈 -15.0%, 아연 -15.1% 등

- 주요 경기지표 부진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되고 달러도 강세(→위안화 약세)를 나타냄에 따라 전품목 하락. 아연 가격은 '20년 10월 이후 최저치
- 금 가격은 차익매물 출회, 달러강세 등으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. 철광석은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 기록

품목	4월말	5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구리(\$/톤)	8,596	8,089	-5.9	-3.4	-14.4	8,788.4	8,795.8
알루미늄(\$/톤)	2,356	2,246	-4.7	-5.6	-19.4	2,710.9	2,393.5
니켈(\$/톤)	24,219	20,588	-15.0	-31.5	-27.5	25,617.5	24,996.1
아연(\$/톤)	2,647.5	2,248.5	-15.1	-24.4	-42.5	3,439.6	2,924.1
납(\$/톤)	2,148	2,013	-6.3	-12.2	-7.8	2,144.6	2,121.9
금(\$/온스)	1,990.00	1,962.73	-1.4	7.6	6.8	1,802.5	1,933.0
철광석(\$/톤)	106.49	98.85	-7.2	-11.5	-25.9	112.9	113.2

주 :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LME

자료 : Bloomberg, L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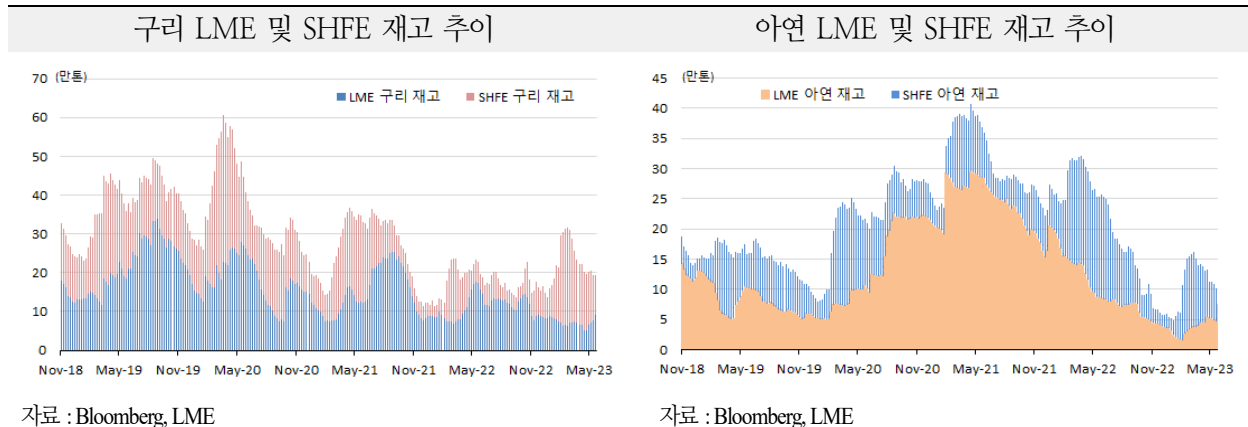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지표 점검

- 중국 경기 : 제조업지수 개선, 산업생산 예상 하회, 주택가격 상승 둔화 등

	3월	4월	5월	비고
차이신 PMI	50.0	49.5	50.9	• 국가통계국 PMI(2개월 연속 50 ↓)와 달리 개선
산업생산(% yoy)	+3.9%	+5.6%	-	• 전월비 높아졌으나 예상치(10.9%)의 절반 수준
기준 주택가격(% mom)	+0.26%	+0.01%	-	• 매물 증가, 거래 위축 등 다시 냉각되는 조짐

자료 : Bloomberg

- 거래소 재고 : 전체적으로 전월 마지막 주 대비 감소, 아연은 LME에서 큰 폭 증가
 - 5.26일 구리 재고는 LME에서 9.8만톤으로 전월 마지막 주 대비 3.3만톤 증가(+51.4%)였으나 SHFE에서 5.1만톤 감소(-37.1%)하여 전체적으로 1.8만톤 감소(-8.8%). 알루미늄 재고도 SHFE에서 큰 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.0만톤 감소(-8.7%)
 - 반면, 아연 재고는 LME의 2.2만톤 증가(+40.7%)가 SHFE의 1.2만톤 감소(-20.7%)를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0.9만톤 증가(+8.1%)



- LME 비철금속 선물의 금융투자자 포지션은 악화된 투자심리를 반영하여 순매도 전환
 - 구리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포지션은 5.26일 -0.2만계약에서 '20년 6월초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. 4월 중순 이후 위험선호심리 약화로 매도포지션이 크게 확대
 - 알루미늄의 순포지션은 4.28일 2.0만계약에서 5.19일 -1.0만계약으로 감소한 후 2.26일 -0.1만계약으로 다소 회복. 아연은 글로벌 수요 부진 여파로 4월 중순 이후 마이너스 지속(※5.26일 -0.9만계약)

□ [관전포인트] 중국 경제, LME 현물 프리미엄, 위안화 향방 등

- 비철금속 최대 소비국인 중국 경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
 - 4월 산업생산, 소매판매, 수입 등 주요 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하고 부동산 부문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최근 퇴색하는 조짐. 일부에서는 앞으로 2~3%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평가(WSJ)
 - 다른 한편에서는, 투자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소비 및 서비스업 활성화의 지속으로 올 해 6%에 육박하는 성장을 여전히 기대(※주요 IB 성장률 전망, 4월 5.7% → 5월 6.0%로 상향)
- LME 비철금속 현물 프리미엄(※현물가격-3개월물 가격)은 품목별로 혼조

- 구리 현물 프리미엄은 5월 중순 -\$66까지 하락한 후 월말 -\$19로 회복. 니켈 프리미엄도 한 때 -\$175 기록 후 월말 -\$155로 다소 회복. 알루미늄의 경우 월 중반까지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나 이후 상승하며 월말 \$40.5 기록

○ 중국 위안화의 강세 전환은 경기 및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여부가 관건

- 위안화는 2월까지 달러인덱스에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으나, 이후 달러 약세에도 강세폭이 제한되고 4월 중순부터는 약세가 심화되면서 5월 중순 7.0위안을 상회 (※연초 이후 상승률, 달러인덱스 +0.6%, 위안화 -2.6%)
- 중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연준의 금리인상이 중단되어 달러 약세 환경이 조성되면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될 전망. 그 전까지는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, 변동성도 확대될 소지

□ [전망]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호전되기 전까지 비철금속 가격은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. 다만 단기 낙폭이 과대하고 과매도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**상황으로 평가**

-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수요회복 기대감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5월(a) ¹⁾	'23.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
구리	8,817.4	8,700(-225)	8,750(-70)	8,598(-177)	8,800(-17)
알루미늄	2,267.0	2,360(-90)	2,450(-50)	2,515(-)	2,500(-30)
니켈	22,087.9	23,464(-261)	22,522(-240)	22,250(-430)	21,400(-855)
아연	2,485.6	2,394(-606)	2,800(-200)	2,790(-110)	2,845(-196)

주: 1) 5월 평균값 2) 5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ch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